

국립공원에 관한 인식유형 개발

-이익집단의 인식유형조사-

윤 영 일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A Study on Development of the Perception Types toward National Park

-An Investigation on the Perception Types of Interest Groups our National Parks-

Youn, Young-il

Dept. of Forestry,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t is essential to get full social supports of our national parks for the achievement of long-term goals of our national parks. Thus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major perception types of interest groups of our national parks. The research method is greatly indebted to Hofer(1987). Two stages of questionnaire surveys were carried out to identify perception types related to national parks and the statistical analysis of perception typ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ight types of perception on national parks were selected through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en preliminary perception types; nature preservation, appreciation of scenic beauty, culture, recreation, research, education, ethics, and economy. Second, three or four phrases relevant to eight perception types were identified. Third, it could be concluded that perception types identified through this research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commonly perceived on national parks and natural landscapes in western countries.

I. 서론 및 연구방법

1. 서론

국립공원이 고유기능인 자연보호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회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ABN, 1985; Youn, 1993; 윤, 1997). 국립공원과 자연보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란 사회구성원들이 자연보호를 일상적 가치로 인식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나타나는 것인데 사회통계학적 연구는 이 부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흔히 사용된다. 또 이런 연구의 결과는 장기정책의 방향선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사회현상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항상 한정된 결론을 도출하지만 대상(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유형과 실제행동(행위)과의 연관을 분석하여 관리정책의 방향결정에 참고하기 위한 연구는 자연보호나 국립공원 관련정책 결정에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다. 방법적으로 유사한 연구에는 Kellert and Berry (1980)가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유형을 연구하여 8가지 형태의 인식유형을 분류하였고 독일에서는 Schulz(1985)가 이 방법을 역시 야생조수와 관련하여 이용하였다. 이와는 달리 Hofer(1987)는 인식대상을 자연보호지역(바이에리쉬발트 국립공원, 랑에된 자연보호지구)으로 선택하고 사회(독일)에서 자연보호가 가치의 대상인지를 검증하였다.

Hofer(1987)는 Pretest를 통하여 인식형과 해당문항을 결정하고 선발된 문항과 인식형을 이의집단 설문조사(2차조사)를 통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였고 최종적으로 방문객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Flay(1982)와 Rosenberg(1969)의 가치기대 이론을 이용하여 인식과 행위와의 연관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방문객의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과

직접적인 행동(행위)과의 관계를 분석, 연구할 설문조사에 필요한 인식유형과 그들을 설명할 문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행된 예비조사이다. 또 광범위한 조사를 통한 결과도출이 목표가 아니며 오히려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유형과 행위의 관계를 도출하려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전체적인 연구의 목표는 인식유형과 일상적인 가치구조와의 관계를 연결시켜 얻은 결과를 정책방향 결정에 이용하려 함이다. 방문객 인식조사가 주목적인 2차 연구는 이 다음의 논문으로 발표하며 그 결과에 따른 장기정책 방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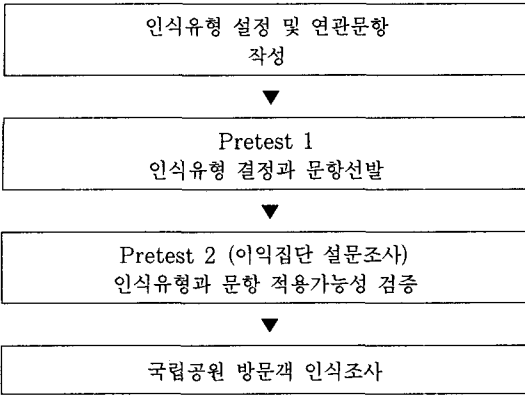
2. 연구방법

(1) 연구단계

본 연구의 목표를 수행하는데는 총 4단계의 작업이 필요하다. 우선 국립공원과 연관된 모든 인식형을 설정하고 개개 인식유형을 가장 잘 설명하리라고 추정되는 문항을 만드는 1단계작업, 인식형에 가장 적절한 문항을 Pretest로 결정하는 2단계작업, 선발된 인식형과 문항을 검증해보는 3단계작업과 마지막으로 최종 결정된 문항으로 시행된 방문객 인식조사 결과를 전통문화와 일상적인 가치, 국립공원이라는 자연보호 기구에 대한 평가와의 접목을 Rosenberg(1969)의 가치기대 이론¹⁾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Hofer의 연구방법을 따랐으며 전통문화 분야는 과외로 추가하여 분석하였다²⁾. 이외에 2단계와 3단계 설문조사에는 추가로 국립공원(자연경관)과 가장 연관이 깊은 전통적 인식을 수집하여 마지막 방문객 설문조사에서 이용하였다. 이번 연구의 범위는 3단계작업까지로 그 이후는 이 다음 논문에서 다루기로 한다.

1) Rosenberg의 가치기대 이론은 다음 논문에 이용되므로 설명을 피함.

2) 전통문화와 관련된 연구는 모두 이 다음 논문에서 취급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함.



〈그림 1〉 연구단계

(2) 1·2차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방법

1차 설문조사는 서울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주변을 대상으로 행하여졌다. 서울에서는 주로 여행사, 자연보호관련자, 산악인, 다양한 층의 교육기관 종사자, 학생, 불교신도, 스님 등 그리고 설악산 국립공원 주변에서는 주로 주민, 다양한 관청의 직원, 불교사찰과 관련된 사람 등 총 12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직접 조사법(paper-pencil)이며 Likert 측정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항결정은 인식형 값(실제적인 평가의 총점/가능한 총점)에 가장 높은 상관(r)을 가지는 것으로 선발되었고 선발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탈락시켰다. 만약에 두 인식유형의 상관(r)이 너무 높으면 한 유형으로 통일시키고 그 인식형에 가장 적절한 문항을 선발하였다. SPSS 7.5 for Windows 프로그램이 모든 결과 분석에 이용되었다.

2차조사는 1차 조사에서 선발된 문항과 인식형의 사용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위한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국립공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익집단을 선발하였는데 개개의 집단은 현실적으로 명확한 의견차이를 보여야 한다. 즉, 단순히 명목상의 단체나 이름과 행동이 다른 이익집단은 분석에 좋은 결과를 주지 못하며 오히려 방해가 되므로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Hofer, 1987; Youn, 1993).

이러한 이익집단 선발 중에 특히 자연보호단체의 선발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형 자연보호 단체나 국립공원 관련 단체들은 실제로 자연보호에 매우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규모이며 이름도 미미한 단체들이 일관적인 행동을 보여 이들을 선택하였으며 그 성격이 확실한 일부 생태관련 단체와 환경단체를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제위주’와 ‘휴양위주’ 관련단체도 두 단체의 분리에 문제가 있었으나 경제위주의 집단은 현지에서 숙박업, 요식업을 하거나 민박을 하는 지역주민에서 선발하였고 휴양위주 단체는 멀리서 국립공원을 찾는 단체인 일반산악회, 전문산악회 그리고 일부 여행사로 규정하였다. 이외에 교육 및 학술관련 단체, 문화관련 단체는 수도권과 현지에서 선발하였다. 선발된 단체들은 대부분 직접 국립공원과 연관된 단체이며 공식적으로 등록된 단체이다. 오직 지역주민들만이 비공식적인 단체이나 명백한 이익집단의 성격을 띠어 선발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제위기가 오기 전인 1997년 10월에 실시되었다.

II.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유형과 연관 문항 선발

1. 인식유형 및 연관 문항 모집

Hofer(1987)는 국립공원과 관련하여 6가지의 인식유형을 비교적 명백하게 분리하고 사회

〈표 1〉 국립공원과 자연보호지역에 대한 독일국민의 인식유형

인식유형	개념 (Definition)
경제지향	자연보호에 대한 생각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함
보호지향	자연보호구역은 자연적인 생명의 원천을 보전함
교육지향	보호구역의 교육적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가짐
아름다움 추구	보호구역에서 주로 수동적으로 자연을 즐김 (소비 지향적)
휴양지향	보호구역에서 활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연을 즐김 (소비 지향적)
학술지향	보호구역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함

자료: Hofer(1987)

(독일)에 자연보호를 위한 인식이나 가치체계가 실제로 존재함을 검증하였다. 6가지 인식유형은 <표 1>과 같다.

Hofer는 인식유형 결정에 있어 미국 국민의 자연에 대한 가치유형의 하나인 "Fish and Wildlife are of ecological, educational, esthetic, cultural, recreational, economic, and scientific value to the Nation." (Fish and Wildlife Act, 1980)의 유형과 Ratcliff (1982)의 보호 필요지역에 대한 평가에서 이용된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였다.

물론 이런 유형은 우리와 많은 면에서 다른 서구사회에 일반적인 유형이다. 그러나 국립공원(National Park)이 미국의 고유문화(Harmon, 1987)이고 전통적으로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문화권에서 생성된 개념인지라 설문조사의 문항결정에 위에 제시된 인식유형은 일단 모두 참고하였으며 특별히 우리와 사정이 너무 다른 문항은 배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화차이가 우려되나 실제 대부분의 문항은 내용상 우리의 현실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지 '윤리지향' 유형은 국립공원에서 급진적 성향을 가지나 국립공원 고유의 목표인 보존개념이 우리 사회에도 도입이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의미에서 채택하였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 행해진 국립공원과 관련된 설문조사의 다양한 문항과 실제로 존재하리라 예상되는 인식형을 보충시켜 1

<표 2> 국립공원에 대하여 예상되는 인식유형

가능한 인식유형	예상되는 개념
생태지향	생태계의 원리를 이해하고 해당지역을 보호하려함
보호지향	국립공원은 자연보호를 위한 지역임
윤리지향	국립공원에서는 자연 스스로 존재가치를 가짐
교육지향	국립공원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음
경제지향	국립공원은 경제적 가치가 중요함
문화지향	불교문화는 국립공원에서 매우 중요함
휴양지향	활동적이고 소비적으로 자연을 즐김 (정상정복, 체력단련이 주목적)
학술지향	국립공원은 학술발전에 기여해야함
감상지향	수동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김(자연감상이 주목적)
심미형(동양적)	동양사상적 관점에서 자연을 즐김

차 조사를 통해 그 유용성을 조사하였다. 특히 윤리적 성격의 문항과 모든 산악형 국립공원에 존재하는 불교사찰과 관련된 문화적 성격의 문항도 다수 추가하였다. 이외에도 전통적 자연관과 관련된 문항을 추가하여 Hofer의 6개 인식유형과는 달리 모두 10개 인식유형<표 2>를 선정하고 인식형당 약 8개씩, 총 85개의 문항을 선정하였다.

각 문항은 국립공원에서 예상되는 인식유형을 대변하는 인자로 다양한 내용을 담도록 하였으며, 문항은 긍정적 문항만이 아닌 부정적 문항도 추가하여 편파적인 선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2. 1·2차 Pretest를 통한 인식형과 연관문항 결정

(1) 1차조사 결과 및 분석

총 92장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예측한대로 Hofer의 결과와는 달리 매우 다양한 인식유형이 표출되어 몇 개의 문항으로 묶여진 인식유형이 과연 의도한 정의와 일치하는지 문항과 인식유형, 그리고 개개의 인식유형 간의 상관관을 조사하였다. 예상 밖으로 "생태지향"유형을 제외한 대부분 인식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생태지향 유형은 "보호지향" 유형과 함께 할때만 선발전(p<0.001)을 충족시켜 두 유형을 합쳐 "보호지향"유형으로 결정하였다. "감상지향"과 "심미형" 유형도 확인되었으나 서로 아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역시 "감상지향"유형으로 통일하였다. "윤리지향"과 "보호지향" 유형 역시 그 상관관을 검토하였으나 거의 상관없이 분리하여 취급하기로 하였다. 인식유형과 대표적 문항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표 3>. 대부분의 인식형에서 4개의 문항이 선발되었으나 보호지향 유형과 윤리지향 유형은 3개의 문항만이 조건을 만족시켰다.

선발된 문항으로 조합된 각각의 인식유형은 Hofer(1988)의 인식유형과 언뜻 보면 동일하게 보인다. 그러나 인식형을 구성하는 선발문

<표 3>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유형과 선발된 문항과의 상관계수 (p < .001)

인식유형	선발된 문항번호 (상관계수)			
감상지향	11 (.6542)	22 (.6661)	27 (.5672)	72 (.6231)
학술지향	6 (.5442)	26 (.6734)	35 (.5521)	51 (.6035)
휴양지향	29 (.4954)	42 (.6117)	47 (.5946)	71 (.6112)
경제지향	17 (.7101)	31 (.6002)	57 (.4788)	69 (.4543)
보호지향	8 (.5112)	43 (.5178)	56 (.6339)	
윤리지향	2 (.7226)	23 (.4992)	77 (.7904)	
교육지향	24 (.5766)	48 (.5966)	54 (.6189)	59 (.5966)
문화지향	14 (.7332)	30 (.4773)	39 (.5487)	67 (.4832)

항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격에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Hofer의 경우 보호지향 유형은 윤리적이고 생태적 관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보호지향 유형에 자연중심적 성격의 문항이 빠져버려 명목상의 자연보호임을 의미한다. 선발된 세 문항은 모두 “생태계 보호”를 의미하지만 자연중심적 (biocentric) 성격을 가진 문항은 전혀 선발되지 않아 자연과 관련된 보호지향 유형의 성격에 문제를 나타내며 “생태계”라는 현재 유행하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하게 윤리지향 유형도 확인되었으나 성격은 서구와 매우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형의 성격은 보호지향 유형과 연관성을 보이지 않아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가 아닌 “후손에 대한 책임”에 중점을 두는 인간위주 (anthropocentric)라는 점이다. 또, 감상지향 유형은 수동적 감상(感想)만이 아니라 동양사상에 영향을 받은 신비적 요소가 반반씩 포함되어 역시 서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문화지향 유형은 Hofer의 인식유형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국립공원에 이미 수백년 전부터 존재하는 불교사찰과 관련된 인식형으로 보여진다.

(2) 2차조사 결과 및 분석

두 번째 실시된 설문조사는 1차조사에서 선발된 문항 확인이 주목적이며, 이익집단의 인식유형도 부수적으로 알 수 있다. 총 250매의 설문이 우편으로 발송되어 독촉편지와 함께 2주 이내에 회송된 설문지는 모두 168매였으며 이중에 152매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상적 문항이란 문항끼리는 상관(r)이 작고 인식유형 자체와는 높은 상관을 보여야한다. 모든 문항의 상관효과(r)는 Bravais-Pearson의 Product-moment Correlation에 의거하여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문항은 T-Test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으며 오직 “학술적” 문항은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았으나 선발조건에 통과하여 이용하기로 하였다. 전체 신뢰도 $\alpha = 0.7256$ 로 만족한 결과를 보였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문항은 최종 결정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선발조건을 만족시켰다(표 4).

<표 4> 국립공원에 대한 이익집단의 인식유형과 선발된 문항과의 상관계수 (p < .001)

인식유형	선발된 문항번호 (상관계수)			
아름다움 추구	1 (.7331)	16 (.7725)	20 (.6754)	22 (.6543)
감상지향	11 (.7342)	28 (.6002)	26 (.5672)	2 (.5238)
휴양지향	8 (.8221)	10 (.7211)	27 (.7271)	15 (.6853)
경제지향	25 (.7231)	3 (.6551)	29 (.5882)	7 (.5761)
보호지향	17 (.7119)	5 (.6855)	18 (.6032)	
윤리지향	13 (.8079)	23 (.7123)	21 (.5647)	
교육지향	6 (.7874)	19 (.7541)	14 (.6551)	24 (.6017)
문화지향	4 (.7341)	12 (.6830)	9 (.6021)	30 (.5211)

전체적으로 인간위주의 윤리지향 유형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그 다음이 교육지향 유형과 감상지향 유형, 그리고 보호지향 유형은 문화지향 유형과 함께 중간정도의 위치를

접하였다. 특별히 다른 유형에 비하여 분포도가 낮은 유형은 경제지향 인식유형이었다<표 5>.

모든 이익집단의 성격에는 관계없이 윤리지향 유형과 교육지향 유형이 앞서 있으나 그 다음은 대개 이익집단의 성격을 대변해주는 인식 유형들이 자리한다. 이것은 선발된 문항과 조합된 인식유형의 실용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에 이익집단 조사에서 인식형의 분포가 집단의 성격과 너무 다르게 나타난다면 선발된 문항이나 인식유형의 실용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지향 유형을 제외한 모든 인식형은 감상지향 유형과 연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교육지향, 문화지향, 윤리지향 유형에서 뚜렷하게 연

관이 나타났으며, 경제지향 유형과 문화지향 유형은 보호지향 유형과 약하지만 상반된 연관관계를 보인다<표 6>. 특이한 것은 윤리지향 유형이 교육지향, 문화지향 유형과는 연관을 보이거나 보호지향 유형과는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3. 결과 및 고찰

1,2차 조사의 결과는 방문객 조사에 이용될 예비조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 검증을 통한 인식형과 문항결정 단계에서 이미 자연보호나 국립공원의 관리에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인식유형을 조합하는 문항조사를 위한 두 차례의 설문조사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검증이 가능한) 국립공원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지가 잘 보여진다. 물론 설문조사 분석을 통한 사회현상 규명이란 어디까지나 일부분의 진실을 말할 뿐이다(Bortz, 1984). 그러나 서구문화인 국립공원의 인식에 관한 정보는 비록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정책수립에 현재와는 다른 출발점을 제시 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현재 많은 자연보호 단체나 환경운동 단체 혹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국립공원에서 자연보호를 위한 인식형이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이다. 서구 국립공원에서 통용되는 인식유형과는 달리 윤리지향 인식유형은 자연보호와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생태지향 유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런 현상은 이익집단 조사에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개개 인식유형을 설명하는 문항의 성격을 분석하면 더욱 명백해진다.

서구에서 일상화된 국립공원에 관한 인식형과는 달리 문화지향 인식형이 불교문화와 연관하여 나타났으며, 전통문화적 자연관을 대변하는 감상지향 인식유형은 문화지향 유형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일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인식유형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표 6>.

<표 5> 이익집단의 국립공원 관련 인식유형 분포

분포순위	1	2	3	4	5	6	7	8
이익집단								
총 순 위	E	P	A	S	C	W	R	O
경제	E	P	A	C	R	O	S	W
휴양	E	C	R	A	P	S	W	O
자연보호	P	E	S	A	C	W	R	O
교육	A	E	P	C	S	R	W	O
문화	E	C	A	P	S	R	W	O

E ; 윤리지향 P ; 교육지향 C ; 문화지향
S ; 보호지향 A ; 감상지향 W ; 학술지향
O ; 경제지향 R ; 휴양지향

<표 6> 이익집단의 인식유형간 상관계수

인식 유형	감상 지향	학술 지향	경제 지향	보호 지향	교육 지향	문화 지향	윤리 지향
학술 지향	.2623*						
경제 지향	.0612	.1725					
보호 지향	.2456*	.1918	-.0132				
교육 지향	.4188**	.2734*	.0891	.3323**			
문화 지향	.3121**	.2627*	.1867	-.1667	.2923*		
윤리 지향	.4432**	.0221	.0765	.1432	.3354**	.2256*	
휴양 지향	.2254*	.1432	.3543**	.0331	.1342	.1673	.0452

* = 0.001 < p < 0.01,

** = p < 0.001

<표 7> 확인된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유형과 수정된 개념

인식유형	수정된 개념
보호지향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
감상지향	수동적 자연감상이나 동양사상이 가미된 자연과의 접촉이 중요하다
문화지향	국립공원은 전통문화(불교)를 유지해야 한다
휴양지향	능동적인 휴양(정상정복, 체력단련)이 국립공원에서 중요하다
학술지향	국립공원은 학문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교육지향	국립공원의 교육적이고 홍보적 기능에 관심이 있다
윤리지향	후손에게 국립공원을 그대로 물려주어야 한다 (인간 중심적)
경제지향	국립공원에서라도 경제가 우선이다

교육지향 유형이 보호지향 유형과 상관을 가진다는 점은 그 중에서 고무되는 일이지만 동시에 인간위주의 윤리지향 유형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그 성격이 매우 복잡함을 잘 보여준다. <표 6>은 자연보호지역인 국립공원과 관련된 이익집단의 성격이 전체적으로 평준화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것은 이익집단 간의 첨예한 대립(ABN, 1985 ; Youn, 1993)을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서구 사회와는 국립공원을 인식하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1, 2차 조사를 통하여 선발되고 확인된 유형을 선발문항의 성격에 따라 새로 분류하면 <표 7>과 같으며 선발문항은 <표 8>과 같다.

Ⅲ. 결론

이후 실시될 국립공원 방문객 인식조사를 위한 1,2차 예비조사를 실행하여 총 8가지 인식유형을 확인하고 각 인식유형 마다 적절한 설명문항을 3개 내지 4개를 선발하였다. 물론, 이 단계에서 짧은 사회과학적 지식과 국문학적 전문성의 부족은 제한된 여건 하에서 피할 수가 없었다. 차후에 이 방면에 학제간 연구가 시도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전체적으로 비록 인식유형과 관련문항을 개발하는 단계에 그친

<표 8>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유형별 선발문항

인식유형	선발문항
감상지향	1. 나는 아름다운 나비나 꽃, 나무를 구경하러 국립공원에 간다 16. 깊은 산속에 홀로 있으면 나는 스스로를 잊어버리고 자연 속에 몰입한다 20. 숲의 좋은 향기와 푸르름이 국립공원 방문에 가장 중요하다 22. 산의 신비함 때문에 나는 국립공원에 간다
학술지향	2. 생태학자나 생물학자들이 국립공원에서 자연 생태계를 연구 할 수 있어야 한다 11. 국립공원에서는 학술목적으로 자연을 변경할 수 있다. 26. 자연과학자들은 우리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것이지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생태계를 연구목적으로 파괴해서는 안된다 28. 국립공원은 자연의 원리를 연구하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휴양지향	8. 일상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나는 국립공원에 간다 10.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국립공원에서 가장 중요하다 15. 국립공원 설립의 주목적은 방문객의 여가선용이다 27. 정상정복이 국립공원에 온 목적이다
경제지향	3. 국립공원은 설립후 경제적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 7. 농업과 임업은 국립공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25. 새로운 국립공원 설립시에는 그곳이 경제활동(예; 공장부지)에 적합지가 아닌가를 자연생태계가 어떠한가 보다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29. 국립공원 설립에는 지역경제를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항을 생태계에 관한 사항보다 먼저 고려해야 한다
보호지향	5. 뱀이나 벚섯, 약초 채취 정도는 국립공원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7.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산악인들은 국립공원이 아닌 다른 산을 찾아야 한다 18. 어떤 특별한 종류의 동식물 보호보다 생태계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 국립공원의 목적이다
윤리지향	13. 우리는 후손에게 현 국립공원을 본 모습대로 물려주어야 한다 21. 사람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이다 23. 국립공원은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보존한다
교육지향	6. 생물수업은 학교보다 국립공원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4. 국립공원은 자연과파괴가 무엇인가를 방문객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9. 국립공원에는 방문객 홍보를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한다 24. 국립공원에 오면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고싶다
문화지향	4. 사찰과 기타 문화재도 국립공원의 중요한 요소이다 9. 우리의 전통적인 이용(예; 양봉, 심마니)은 국립공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 12. 나는 절에 가기 위하여 국립공원에 간다 30. 불교사찰은 국립공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연구지만 우리 사회에 자연보호를 위한 인식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은 의심 할 바 없다. 이와는 달리 전통문화와 관련된 인식이 여러 인식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이런 결과를 고려한다면 장기 정책은 국립공원이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와의 관계를 다각도로 개발·이용하여 국립공원 본래 목적인 자연보호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리라 보며, 다음번 조사의 결과분석에서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윤 영일, 1996, "국립공원의 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국제적 동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4(2); 53-61
2. 윤 영일, 1997, "국제자연보존 연맹의 정의 이해를 통한 우리 국립공원의 근본적 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5(2): 1-8.
3. ABN(Arbeitsgemeinschaft beruflichen und ehrenamtlicher Naturschutz)(1985), Nationalparke-Anforderungen, Aufgaben und Lösungen. Jb.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Bd. 42. Bonn
4. Bortz, J. (1985), Lehrbuch der empirischen Forschung für Sozialwissenschaft. Berlin-Heidelberg-New York-Tokyo; Springer
5. Fish and Wildlife Conservation Act (1980), Pub. L. 96-366, 29. Sept. 1980
6. Flay, B. R. (1982), "Verhaltensänderung durch Gesundheitsprogramme in den Massenmedien: Theoriemodelle und Möglichkeiten ihrer Anwendung" In: Meyer, M. (Hrsg., 1982), *Gesundheitserziehung in Fernsehen und Hörfunk*. München, New York, London, Paris : Saur: 58-89
7. Harmon, D. (1987), "Cultural diversity, human subsistence, and the National Park Ideal". *Environmental Ethics*. 9 : 147-158
8. Hofer, D. (1987), Naturschutz als Wertobjekt : Eine exemplarische Studie über Einstellungen zur Schutzgebieten. Diss. Forstwiss. Fak. Uni. München.
9. Kellert, St. R. and Berry, J. K. (1980), Knowledge, Affection and Basic Attitudes toward Animals in American Society: Phase III, U. S. Dept of the Interior, Fish and Wildlife Service.
10. Ratcliff, D.A. (1981), Warum schützen? Naturopa 38.
11. Schulz, W. (1985), Einstellungen zur Natur. Eine empirische Untersuchung. Diss. Forstwiss. Fak. Uni. München
12. Youn, Y. I. (1993), Nationalpark-Idee und Praxis: Versuch der Entwicklung einer tragfähigen Nationalpark-Alternative für die Republik Korea unter Beachtung insbesondere kultureller Einflüsse. Diss. Forstwiss. Fak. Uni. Freiburg.